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무용 창작 「피할 수 없는 순간들」에
관한 연구



HANSUNG
UNIVERSITY

2019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이 범 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재홍

무용 창작 「피할 수 없는 순간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eative Dance Work,
「Inevitable Moments」



HANSUNG
UNIVERSITY

2019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이 범 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재홍

무용 창작 「피할 수 없는 순간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eative Dance Work,
「Inevitable Moments」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이 범 구

이범구의 무용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무용창작 「피할 수 없는 순간들」 작품에 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이 범 구

본 연구는 사랑에 관한 주제로 「피할 수 없는 순간들」 이라는 작품을 연구하고 표현방법을 찾고자 하였으며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에 나오는 스완과 오테뜨라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라지는 과정을 모티브로 하여 사랑의 실체에 대한 탐구를 해 보고자 발레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사라진 무의식적인 기억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희생시킨 20세기 작가이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는 프루스트의 생각을 선보이는 모든 분야가 소재가 되는데 그 분야에는 예술, 미술, 건축, 인문, 정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소재는 사랑으로 본 연구자는 프루스트의 소설을 접하면서 요즘 시대에 통용되는 사랑의 의미와 다른 접근법의 사랑에 대해서 다른 점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본 작품은 프루스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방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작품을 통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알려주는 사랑의 체험은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그 자신의 심오한 부분을 드러내 준다는 점을 결론으로 무용 예술

의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사랑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 장의 특징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질적인 움직임의 요소를 고민하고 움직임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동작을 연결해서 구성하였으며,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조명과 음악, 소품을 통해서 작품의 적절한 이미지와 느낌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과정을 통하여 사랑이라는 단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사랑이 낭만적이지 않더라도 사랑의 가치는 그 자체로도 소중한 것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결과가 얻어지던 간에 사랑의 본질은 그 주체의 중심에 있고, 주체가 존재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랑의 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예술 활동을 위한 동기가 더 확실하게 생겼고 실천적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민과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예술 활동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하고 예술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바라는 바이다.

【주요어】 프루스트, 사랑, 고통, 욕망

목 차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3
2.1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와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해서	3
III. 작품개요	6
3.1 작품내용 및 안무의도	6
3.2 작품의 형식 및 구조	7
3.3 작품의 구성 요소 및 표현매체	8
3.3.1 움직임 표현방법	9
3.3.2 의상	9
3.3.3 조명	11
3.3.4 음악	12
3.3.5 소품	14
IV. 작품분석	16
4.1 1장: 사랑의 여정을 탐험하다	16
4.1.1 내용 및 안무의도	16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16
4.1.3 무대장치 및 조명	19
4.1.4 음악	20
4.2 2장: 꿈속에서 즐기는 사랑의 향락	21

4.2.1 내용 및 안무의도	21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2
4.2.3 무대장치 및 조명	24
4.2.4 음악	25
4.3 3장: 그와 그녀를 일치 시키려고 하다	26
4.3.1 내용 및 안무의도	26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7
4.3.3 무대장치 및 조명	28
4.3.4 음악	29
4.4 4장: 사랑은 전부에 대한 욕구이다	30
4.4.1 내용 및 안무의도	30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31
4.4.3 무대장치 및 조명	34
4.4.4 음악	35
4.5 5장 사랑의 실체	36
4.5.1 내용 및 안무의도	36
4.5.2 움직임 구성 및 의도	36
4.5.3 무대장치 및 조명	38
4.5.4 음악	39
V. 결 론	40
참 고 문 헌	42
부 록	43
ABSTRACT	45

표 목 차

<표 3-1> 작품구조	7
<표 3-2> 움직임 표현 방법	9
<표 3-3> 조명의 빛과 특성	11



그 립 목 차

<그림 3-1> 의상	10
<그림 3-2> 의상	10
<그림 3-3> 의상	11
<그림 3-4> 소품-와인코르크	15
<그림 3-5> 소품-와인잔	15
<그림 4-1> 사랑의 시작(1)	16
<그림 4-2> 사랑의 시작(2)	17
<그림 4-3> 사랑의 시작(3)	17
<그림 4-4> 1장 플로우 패턴(1)	18
<그림 4-5> 1장 플로우 패턴(2)	18
<그림 4-6> 1장 플로우 패턴(3)	19
<그림 4-7> 1장 조명의 형태(1)	19
<그림 4-8> 1장 조명의 형태(2)	19
<그림 4-9> 꿈속의 사랑(1)	22
<그림 4-10> 꿈속의 사랑(2)	22
<그림 4-11> 꿈속의 사랑(3)	22
<그림 4-12> 2장 플로우 패턴(1)	23
<그림 4-13> 2장 플로우 패턴(2)	23
<그림 4-14> 2장 플로우 패턴(3)	24
<그림 4-15> 2장 조명의 형태(1)	25
<그림 4-16> 2장 조명의 형태(2)	25
<그림 4-17> 욕망의 발현(1)	27
<그림 4-18> 욕망의 발현(2)	27
<그림 4-19> 3장 플로우 패턴(1)	28
<그림 4-20> 3장 조명의 형태(1)	28
<그림 4-21> 사랑의 욕망(1)	31
<그림 4-22> 사랑의 욕망(2)	31
<그림 4-23> 사랑의 욕망(3)	32

<그림 4-24> 사랑의 욕망(4)	32
<그림 4-25> 4장 플로우 패턴(1)	33
<그림 4-26> 4장 플로우 패턴(2)	33
<그림 4-27> 4장 플로우 패턴(3)	33
<그림 4-28> 4장 플로우 패턴(4)	34
<그림 4-29> 4장 조명의 형태(1)	34
<그림 4-30> 4장 조명의 형태(2)	34
<그림 4-31> 사랑의 실체(1)	37
<그림 4-32> 사랑의 실체(2)	37
<그림 4-33> 사랑의 실체(3)	37
<그림 4-34> 사랑의 실체(4)	37
<그림 4-35> 5장 플로우 패턴(1)	37
<그림 4-36> 5장 플로우 패턴(2)	38
<그림 4-37> 5장 플로우 패턴(3)	38
<그림 4-38> 5장 조명의 형태(1)	39
<그림 4-39> 5장 조명의 형태(2)	39

I. 서 론

본 연구는 사랑에 관한 주제로 「피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작품을 연구하고 표현방법을 찾으려고 하였고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스완과 오데뜨라는 등장 인물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라지는 과정을 모티브로 하여 사랑의 실체에 대한 탐구를 해 보고자 발레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사라진 무의식적인 기억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희생시킨 20세기 작가이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프루스트의 생각을 선보이는 모든 분야가 소재가 되는데 그 분야는 예술, 미술, 건축, 인문, 정치 등에 아울러서 여러 가지로 제시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소재는 사랑으로 본 연구자는 프루스트의 소설을 접하면서 요즘 시대에 통용되는 사랑의 의미와 다른 접근법의 사랑에 대해서 다른 점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프루스트의 작품 속 등장인물인 스완과 오데뜨는 첫 만남에서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다가 스완이 점차적으로 감정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오데뜨와 가까워지면서 여러 일화들을 보여주게 된다. 그 과정에서 오데뜨는 스완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음의 부재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부재로 인한 스완의 불안은 프루스트가 보이하고자 했던 사랑의 시작 즉 ‘고통으로서의 사랑’의 발생을 보여준다. 그 말인즉 자신의 기억 속에 안겨진 사랑의 상대는 현실의 상대와는 확연히 다른 존재이며 정리해서 말하면 사랑의 상대는 욕망의 상상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환상의 대상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체를 바라볼 때 결국은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프루스트의 작품에서 보이는 사랑에 대한 정의와 실재를 통해 본 연구자는 사랑하는 것이란 상대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창조하며 상상하고 자신 안에 고통과 동시에 기쁨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자는 그 실재를 볼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었고 스완과 오데뜨를 참고삼아 무대에 등장하는 남녀 무

용수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작품의 관찰자이자 주인공 무용수들의 욕망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추가해서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사랑의 탐색과 고통을 거쳐 나오는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조명과 무용수의 움직임의 표현 방법으로 무대에서 이미지화 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무용창작 작품 「피할 수 없는 순간들」에 관한 작품 분석으로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다. I장은 서론으로서 작품 주제와 내용, 안무 의도와 연구과정을 다루었으며, II장은 작품 관련 자료를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전개를 다루었다. III장은 작품의 형식 및 구조와 전반적인 구성요소를 다루었다. IV장에서는 각 장면의 내용과 안무의도, 구성요소와 표현방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 V장 결론은 창작과정에서의 연구를 통해 느낀 점과 기대효과, 보완점을 다루었다.



II. 이론적 배경

2.1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와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해서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A la Recherche du Temps Perdu)¹⁾는 작가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소명을 지닌 작가 자신 마르셀의 철학적인 생을 담고 있다. 수많은 프루스트의 작품 중 사랑이나 질투의 예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중심적인 사랑을 제시해보자면 세 가지로 찾아서 볼 수 있다. 오테뜨에 대한 스완의 사랑 「스완네 쪽으로」, 질베르트와 알베르틴에 대한 화자 마르셀의 사랑 「간힌 여인」, 피아니스트 모렐에 대한 샤틀뤼스의 사랑 「소돔과 고모라」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프루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범한 사랑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샤르가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연애소설이 아니며 이 소설은 예사로이 전개되는 사랑 소설들처럼 하나의 사랑이야기를 일관되게 전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²⁾라고 얘기한 바와 같이 프루스트는 가지고 싶은 욕망, 에로틱한 사랑, 혹은 정신적인 사랑과 다른 조금 더 본질적인 사랑을 파악하려 애썼으며 사랑의 본질은 고통에서부터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는 프루스트의 사랑 심리학의 5가지 공리를 통해서 프루스트식 사랑을 살펴 볼 수 있다.³⁾

1. La personne aimée est insignifiante par rapport à ce qu'on éprouve pour elle.

1)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19세기에서 1차 대전이 끝날 시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약 5백여 명의 많은 인물을 등장시키며 약 3,000쪽에 이르는 과거 회상을 재구성한 마르셀 프루스트의 자전적 대하소설이며 작품은 총 7권으로 구성된다.

2) L. Guichard. (1959). Introduction à la lecture de Proust, Nizet, p. 101.

3) E. Rallo Ditche, J. Fontanille, P. Lombardo. (2005). Dictionnaire des passions littéraires, Berlin, p.170.

2. Personne n'est jamais aime en dépit de ses qualités mêmes.
3. On aime de l'autre 《un autre monde》.
4. On n'aime que l'inaccessible.
5. La passion n'est fondée que sur l'angoisse de l'absence.

1.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느끼는 것에 비교하면 크게 비할 바가 아니다.
2.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은 없다.
3.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누군가의 세계를 사랑한다.
4. 우리는 다가가 갈 수 없는 것만을 사랑한다.
5. 사랑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은 불안에만 토대를 둔다.

이처럼 프루스트는 보통의 사랑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다. 오히려 사랑의 상대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비롯되고 마음의 고통 그리고 의혹을 생기게 하는 애매하고 불투명한 대상이다. 이런 사랑은 이전까지 많은 사랑탐험가들이 분석한 사랑과는 차별화된다. 실제로 「스완의 사랑」에서는 스완이 오데뜨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통이나 질투에 사로잡히는데 그 고통이 사랑하는 사람을 충분히 소유할 수 없는 데서 시작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스완의 욕심이 상대방의 거짓과 대결하기 때문이다. 즉, 프루스트는 스완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 부정과 연인의 부재를 통해서 생기는 불안을 프루스트식 사랑 법칙이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프루스트는 당대의 유명한 예술가들을 연구하고 찾아내는데 이러한 짧고 신비로운 시절들은 기억의 도움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마찬가지로 「스완의 사랑」에서 예술 애호가인 스완은 예술을 통해서 오데뜨와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며 미지의 음악인 뱅퇴이유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의 청취를 통해서 오데뜨에 대한 사랑을 결합하고 오데뜨의 얼굴에서 보티첼리의 초상화가 지닌 유사성을 발견함으로써 그녀에게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게다가 프루스트는 고전과 작가이건 낭만파 작가이든지 사랑의 묘사는 순수한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품고 있는 관념만큼 사랑과 다른 게 없다고”를 생각했다. 즉 그가 조금 더 정확하게 밝히려고 한 여러 개념은 만남, 선택, 존재와 부재 효과, 또 끝으로 완전한 무관심에까지 이르는 망각이다. 이것은 라파에트 부인의 「클레공 대공부인」에서 알 수 있는 후회의 불운한 효과에도, 낭만파의 라마르틴느의 「호수」나 빅토르 위

고의 「올랭피오의 슬픔」에서 나오는 사랑에 실패한 연인에 대한 슬픔과도 상반되는 관념으로 프루스트는 참신한 그러나 비극적으로 전개되는 사랑의 묘사를 우리에게 제공한다.⁴⁾



4) Maurois, André. (1993). 「프루스트를 찾아서」, 김창석 옮김, 정음사, p. 273.

III. 작품개요

3.1 작품의 내용 및 안무 의도

<작품 내용>

- 1장. 사랑의 여정 탐험 시작.
- 2장. 꿈에서 즐기는 사랑의 향락.
- 3장. 그와 그녀를 일치시키고자 하였다.
- 4장. 사랑은 전부에 대한 욕구이다.
- 5장. 사랑의 실체

<안무 의도>

이번 작품 「피할 수 없는 순간들」에서는 사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낭만과 불안과 소유와 무의식적인 추억에 대한 이미지를 서정적인 분위기보다는 몽환적이면서 심미적인 분위기로 나타내고자 하며 사랑의 감정보다는 관계 즉,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을 탐구하면서 아울러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사랑의 체험은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그 자신의 심오한 부분을 드러내 준다는 점을 다양한 조명의 효과와 더불어 오브제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한다.

안무: 이범구

출연: 이범구, 박재혁, 태 정원

음악: 김준수

소품: 와인잔 2잔, 와인 코르크 20개

작품 시간 : 17분

3.2 작품의 형식 및 구조

이번 작품은 총 5장의 구조로 사랑에 여정에서 시작되는 서로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욕망과 환멸의 과정을 담았다. 전체적으로 기승전결의 구조로 구성하였으며 <표 3-1> 로 다음과 같이 작품의 구조를 정리하였다.

<표 3-1> 작품 구조

장 구분	주제	표현방법	시간
1장	서로의 시선을 마주보고 있지만 몸은 서로에게 틈을 주지 않고 있다.	시선과 손끝을 이용한 움직임 사용. 두 무용수를 무대 각 상수와 하수 옆에 배치해 upstage에서 downstage로의 이동을 통해 긴장감 조성.	3분
2장	남자의 꿈속에서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현실에서 여자와 가까워지는 모습.	남자 무용수는 주로 바닥에서 움직이는 플로어 패턴을 보여주고 와인잔을 들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의 호감이 작용하는 상황을 표현.	3분
3장	두 남녀는 본능적인 느낌으로 서로 가까워지고 사랑의 환희를 맛보기 위한 서로 욕망과 행동을 유발한다.	남녀의 접촉을 통한 2인무로 서로의 밀고 당기는 무게 중심을 이용해 사랑의 경험에서 오는 감각적 쾌락을 통해 사랑의 감정에서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증폭되는 장면을 표현한다.	3분
4장	남자는 사랑을 유지하려고 하고 고통과 고뇌가 증가하는 만큼 사랑의 진실에 가까워진다.	서로를 잡고 흔들리고 밀쳐내는 움직임의 역동성을 이용해서 사랑에 대한 불안과 고뇌의 모습을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와인코르크를 사용한다.	5분
5장	사랑의 고통이 지난 간 후에 서로의 욕망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망도 줄어든다.	와인코르크를 와인잔에서 바닥에 쏟아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를 사랑의 본능에 소모해 버린 장면으로 표현하였다.	3분

3.3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매체

3.3.1 움직임 표현방법

작품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움직임의 표현은 각 장마다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 맞게 특징적인 신체부위를 사용한 움직임으로 구성하였다. 기승전결 구조의 형식을 따라서 움직임도 팔과 다리를 길게 늘리는 형태의 동작에서 점차적으로 빠르고 힘차게 휘두르는 듯한 동작을 거쳐서 다시 차분한 걸음 형태의 움직임으로 돌아오는 질적인 차이를 두었다. 1장에서 무용수들이 등장하면서 사랑의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두 무용수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는 동선을 사용했고 서로의 몸이 닿지는 않지만 닿을 것 같은 접촉의 움직임을 통해 긴장과 기대가 공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하였다.

2장에서는 무대 공간 전체 남자 무용수의 꿈 속 공간으로 설정하고 따라서 남자 무용수는 주로 누워서 발을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서 시간의 경과와 함께 현실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였고 여자 무용수와 제 3의 무용수는 무대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동선을 사용하다가 여자 무용수와 제 3의 무용수가 서로 마주보고 두 손을 입에서부터 내리면서 쌓아 올리는 움직임을 통해 욕망에 대한 말들 즉, 사랑의 진실을 표현한 말이 아닌 거짓말의 이미지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서로의 호감을 남녀 무용수가 가까워지면서 서로의 욕망을 드러내고 그것이 서로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닌 환상과 현실이 다른 욕망이라는 것을 역동적인 접촉 2인무의 움직임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서로가 잡고 밀치고 던져지고 달리는 움직임을 통해서 인물들의 욕망과 고통에 대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움직임의 에너지는 점점 강해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사랑의 관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과 그림에도 원하는 대로 관계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 하였다.

5장에서는 사랑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난 후의 사라져가는 모습을 비틀거리는 움직임과 점점 천천히 걷게 되는 속도의 변화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 3-2> 움직임 표현 방법

동기	탐구	기대효과
공간 (space)	사랑의 여정에 대한 공간	무대의 끝과 끝의 공간을 넓게 사용함으로써 여정에 대한 과정이 잘 드러나고 무대 중앙 공간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에너지 (energy)	접촉을 통한 에너지 사용	서로의 무게를 견디고 밀어내는 정도를 강약의 조절을 통해서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시간 (time)	빠르게, 반복, 느리게	동작의 반복을 통해서 등장인물 간의 행동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고 움직임의 속도를 빠르게와 느리게 조절함으로써 등장인물의 내면에 대한 느낌을 알 수 있다.

3.3.2 의상

본 작품에 있어서 의상은 프루스트의 소설에 나오는 스완과 오데뜨의 모습을 참고해서 의상을 정하였다. 프루스트의 소설에서 묘사되는 스완은 유태인 가문의 정통 귀족이지만 파리의 귀족들이 자주 모이는 살롱들에 자주 드나드는 사교계 인사이다. 그런 사교계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고급 창녀 출신인 오

데뜨와 결혼까지 감행하는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다.

인물의 캐릭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련되고 멋드러짐을 보이려고 했으며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슈트 형식의 의상을 착용했다. 스완의 모호함과 오데뜨와 만나면서 감정을 뒤섞임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전체적인 의상의 색채는 오데뜨의 의상 색채와 대비되는 진한 청색으로 스완의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했다.

오데뜨를 살펴보면 의심스러운 과거와 현재가 있는 것 같은 그녀의 알 수 없는 모습은 스완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창녀 시절에 장밋빛 여인(dame de rose) 이라고 불렸던 것에 착안을 해서 붉은색 계열의 상의와 회색 계통의 하의 드레스와 재킷을 착용해서 오데뜨의 속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제 3의 인물로 등장하는 무용수는 작품에서 두 무용수 사이에서 감정의 조율과 증폭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에 착안해서 검은 색의 정장 바지와 와인색의 상의 그리고 검은 색의 재킷을 착용하였다.



<그림 3-1> 의상



<그림 3-2> 의상



<그림 3-3> 의상

3.3.3 조명

<표 3-3> 조명과 빛의 특성

빛	방향	효과
전광 (Front light)	피사체의 앞쪽에서 비추는 조명	불필요한 그림자와 입체감을 없애주며, 얼굴을 탄력있게 보이도록 한다.
후광 (Back light)	피사체의 뒤쪽에서 비추는 조명	윤곽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한다.
측광 (Sidelight)	피사체와 관객을 잇는 선에 90도를 이루는 방향에서 비추는 조명	굴곡이 표현이 명확하며, 피사체의 모든 평행선을 부각시킨다.
탑 조명 (Top light)	피사체의 머리 위에서 비추는 조명	짧게 보이게 하며, 평행선을 부각시킨다.
주광 (Key light)	특별한 동기가 설정된 방향에서 들어오는 강한 조명	윤곽을 뚜렷하게 만들고, 짙은 그림자가 생긴다.

무대 위를 시각적으로 완성시켜 관객에게 어떤 이미지를 역할을 하는 조명은 미학적 감수성과 공간 구성능력, 리듬감이 조화되어야 한다. 공연의 요소에서 조명의 기능은 무대 확장, 배경, 분위기, 특수효과, 강화, 조화이다. 작품의 공간에 색을 입히는 작업인 조명은 각 장면의 이미지와 각 장의 분위기 전환마다 조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작품의 전체적인 조명은 각 장마다 컬러감을 다르게 해서 각 장의 분위기에 맞게 조명을 연출하였다. 1장에서는 보라색 위주의 후광(Back light)를 사용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직 익숙하지 않고 약간은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음을 나타냈고 중간에 남녀 무용수가 만나려다 멀어지는 반복적인 움직임을 진행할 때는 길 모양의 특별한 형태의 조명을 사용해서 두 무용수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나타냈다.

2장에서는 꿈 속 공간이라는 설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빨간색과 노란색 위주의 후광(Back light)과 측광(Side light) 그리고 전광(Front light)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조명을 통해서 현실과 거리가 있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2장과는 대비되는 조금 더 현실감 있는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청색의 후광(Back light)과 전광(Front light)를 사용하였다.

4장에서는 서로의 욕망이 얹히면서 사랑에 대한 고통이 부각이 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흰색과 청색의 후광(Back light)과 측광(Side light)을 사용하였고 공간에 대한 사실감과 입체감을 더하기 위해서 그물무늬의 고보를 사용하였다.

5장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사랑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1장과 3장, 4장에서 사용하였던 조명들을 교차시키면서 분위기에 맞게 표현하였다.

3.3.4 음악

본 연구자의 작품 음악은 프루스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시대나 배경을 참고해서 음악을 구성하였다. 등장인물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각 장마다 느껴지는 심상을 구체적이고 공감할 수 있게 나타내기 위해서 적합한 곡을 본 연구자의 작품 음악을 맡고 있는 김준수 음악감독님과 같이 작업을 진행하였다. 김준수 음악감독님은 작곡가로 다수 TV광고음악의 작업을 하였고 서울무용제와 리얼발레그룹 무용단의 작품 음악을 담당했던 경력이 있으며 이번 작품에서 사랑의 여정에 관한 사운드의 배경을 나타낼 수 있는 음악을 담당해주셨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소설의 작가는 1800년대 후반 생존했던 인물이고 소설에 나오는 인물 역시 작가와 동시대의 인물이긴 하지만 위 작품 의도에서 언급했다시피 드라마보다는 극 안에서 관계에 대한 탐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의 극적인 멜로디를 가진 음악곡들의 사용을 지양하였다. 대신에 좀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사운드 작곡을 통해서 관객들이 극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감과 몰입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의도하고자 하였다.」

작품 중에는 3장에서 불어의 시를 이용한 나레이션 사운드를 사용하는데 시의 제목은 샤를 보들레르의 「적수」이고 작가인 보들레르가 자기 작품에 만족 못하는 삶을 먹어치우는 시간에 대해서 울부짖듯 표현한 작품이다. 3장의 내용을 표현할 때 욕망이 커지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심상을 표현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스완의 쾌락에 대한 고통을 사운드의 운율과 일치시켜 움직임 만들하고자 하였다. 시의 본문은 아래와 같이 적어놓았다.

L'ENNEMI(적수)

Ma jeunesse ne fut qu'un ténébreux orage,
Traversé çà et là par de brillants soleils ;
Le tonnerre et la pluie ont fait un tel ravage,

Qu'il reste en mon jardin bien peu de fruits vermeils.

Voilà que j'ai touché l'automne des idées,
Et qu'il faut employer la pelle et les râteaux
Pour rassembler à neuf les terres inondées,
Où l'eau creuse des trous grands comme des tombeaux.

Et qui sait si les fleurs nouvelles que je rêve
Trouveront dans ce sol lavé comme une grève
Le mystique aliment qui ferait leur vigueur ?

Ô douleur ! ô douleur ! Le Temps mange la vie,
Et l'obscur Ennemi qui nous ronge le cœur
Du sang que nous perdons croît et se fortifie !

내 청춘은 암흑 같은 한날 겨우였을 뿐,
이따금씩 찬란한 태양이 가로질렀던;
천둥과 비가 그토록 휩쓸었으니,
나의 정원에 붉은 열매는 겨우 몇 개 남아 있네.

이제 나는 보통의 가을에 닿았나니,
삼과 갈퀴를 써서
물이 무덤처럼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있는
가라앉은 땅을 새로 모아야 하리.

그리고 누가 아는가, 내가 꿈꾸는 새로운 꽃들이
모래톱처럼 씻긴 이 땅에서
원기가 되어 줄 신비로운 양식을 찾게 될지?

아 고통이여! 아 고통이여! 시간은 삶을 잡아먹는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갉아먹는 어렴풋한 적수는
우리가 흘리는 피로 자라나고 튼튼해진다!

3.3.5 소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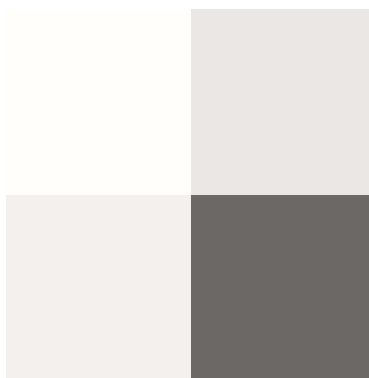
프루스트에게 있어서 음료는 쾌락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육체적인 쾌락에서 성 도착적 쾌락을 보이기까지의 의미를 포함하는 음료는 프루스트식 사랑의(정신적, 육체적, 도착적 의미에서든)에로티즘에 이어지는 요소로 남게 되는 것이다.⁵⁾

위에서 언급한 음료의 의미에 착안을 해서 감정의 물질화, 사물과 존재 사이의 동일화를 의도할 수 있는 소품을 고민을 했고 프루스트 소설의 시대적 배경도 참고를 해서 당시 살롱 문화의 쾌락을 대표할 수 있는 음료로 와인을 생각해 냈고 두 남녀의 사랑에 대한 욕망과 꿈을 사물들을 통해 물질화 시킬 수 있는 소품으로 와인 코르크와 와인잔을 사용하였다.

와인잔과 와인 코르크는 작품의 전반적인 흐름을 끌고 가는데 사용이 되고 와인잔은 두 사람의 욕망을 발현시키는 매개체로 와인코르크는 사랑에 대한 환상을 그려내는 꿈이자 물질화한 수많은 욕망의 조각들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림 3-4> 소품-와인코르크



<그림 3-5> 소품-와인잔

5) 김승철. (2006). 「프루스트와 性의 언어」, 한국학술정보, p. 159

IV. 작품 분석

4.1 1장: 사랑의 여정을 탐험하다.

4.1.1 내용 및 안무의도

첫 남녀가 등장하면서부터 와인잔을 통한 인사를 시작으로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서로의 호감에 대한 느낌을 밝고 경쾌한 분위기보다 묘한 긴장감을 조상함으로서 앞으로 펼쳐질 전개 과정에 대한 호기심과 복선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프루스트의 소설에 나오는 스완과 오데뜨의 사랑의 시작은 서로를 봤을 때 느껴지는 감탄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 그리말디가 “대상의 하찮음과 그것이 초래하는 거대한 마음의 울림 사이의 불균형”이 곧 프루스트의 사랑이라고 언급하였다.⁶⁾ 이 부분을 통해서 서로가 마음이 오고가는 느낌이 있더라도 처음 시작하는 사랑의 모습이 다가가는 형태가 아닌 한 사람은 다가가고 한 사람은 멀어지는 약간은 엇나가는 모습을 생각하고 첫 장면을 구성하였다.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그림 4-1> 사랑의 시작(1)

6) Grimaldi, Nicolas. (1993). *La jalousie*, Actes sub, p. 9



<그림 4-2> 사랑의 시작(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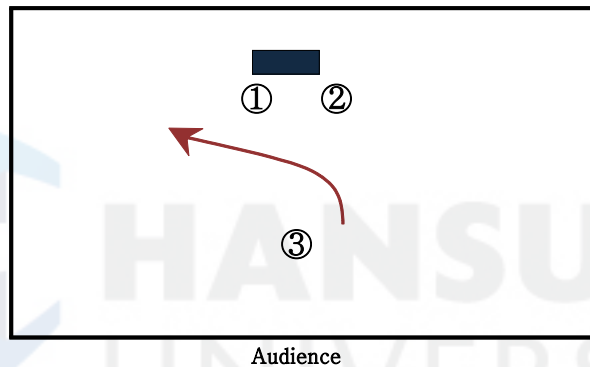


<그림 4-3> 사랑의 시작(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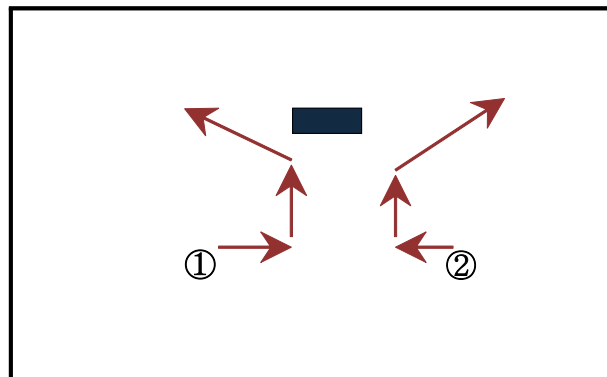
1장에서는 첫 장면의 시작을 관찰자의 역할을 맡은 무용수의 움직임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4-1>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 손에 와인 코르크를 잡고 공간의 위아래를 마치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팔의 곡선의 움직임을 위주로 해서 작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에 대한 동기유발에 목적을 두었다. <그림 4-2>에서 보는 것처럼 무용수들이 서로의 호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모습을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는 동선으로 구성하였고 <그림 4-3>에서 마찬가지로 서로에 대한 확신이 아직 발현하지 않았음을 손과 팔의 동작에서 거리감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관찰자 무용수가 무대 하수 뒤쪽으로 퇴장을 하고 남녀 무용수가 등장을 하고 두 무용수는 무대 상수와 하수 가장 멀리 있는 모서리부분에 마주 보고 서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의 느낌을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동선으로 나타내려고 하였다. 플로어 패턴의 기호는 아래와 같이 그려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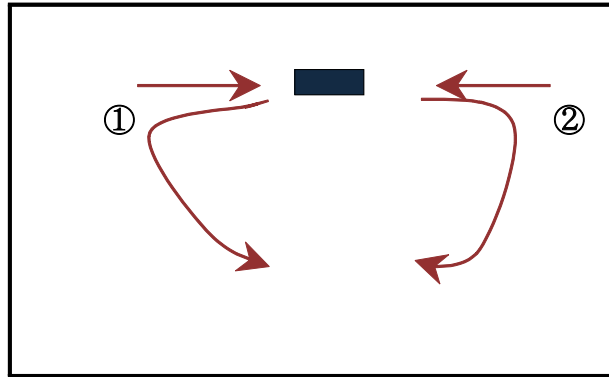
무용수: ①-남자 무용수, ②-여자 무용수, ③-관찰자 무용수 / → 이동동선 / ■ 와인 테이블 / ■ 와인잔



Audience
<그림 4-4> 1장 플로어 패턴(1)



Audience
<그림 4-5> 1장 플로어 패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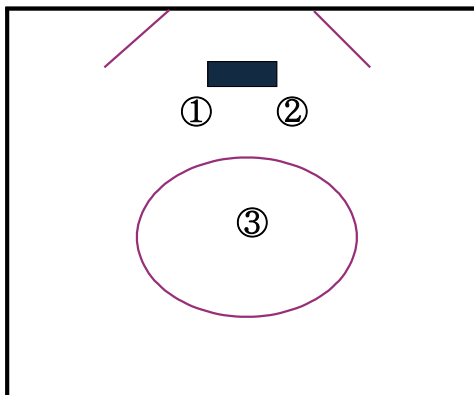
Audience

<그림 4-6> 1장 플로어 패턴(3)

4.1.3. 무대장치 및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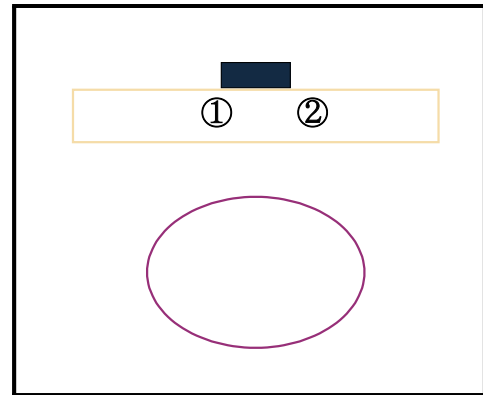
첫 등장에서 무대 가운데 무용수 혼자 독무를 출 때 들어오는 조명은 후광(Back light)보라색 조명으로 작품 초반의 집중도를 높이고 차가우면서도 다음 장면에 대한 호기심 유발 목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어서 남녀 무용수 두 명에서 서로의 관심을 표현하는 동작을 보여줄 때는 백색 전광(Front light)이 추가가 되면서 조명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두 무용수가 하수와 상수 Upstage 양 끝에서 마주보면서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움직임을 할 때 길 모양의 조명으로 방향성을 통한 움직임의 의도를 정확히 하고자 하였다.



Audience

<그림 4-7> 1장 조명의 형태(2)



Audience

<그림 4-8> 1장 조명의 형태(2)

4.1.4 음악

도입부에서 음악은 남녀 무용수가 와인잔을 들어올릴 때, 샴페인 따르는 소리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서로의 관심과 긴장감에 대한 공간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심전도 소리를 삽입하여 청각적 감각에 의한 심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심전도 소리의 반복적인 울림이 끝난 후 이어지는 전자 신디사이저 멜로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서로 바라보고는 있으나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방황하는 마음을 일정하지 않은 여러 종류의 신디사이저 음들을 혼합하여 구성하였다.



4.2 2장: 꿈속에서 즐기는 사랑의 향락

4.2.1 내용 및 안무의도

스탕달에 따르면 “사랑의 발생과정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연애를 하는 남자가 공상의 세계에서 상대방을 극도로 미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상력 속에서 온갖 미점으로 장식하려는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작용을 ‘결정 작용’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감정은 마치 한 남성이 상대편 여성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면, 한없이 자기만족 속에서 스스로의 온갖 행복을 되새기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⁷⁾

본 연구자의 작품을 위해 텍스트로 활용하고 있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도 스완의 결정 작용이 드러난다. 스완에게 오데뜨의 첫 이미지는 자신의 취향과는 동떨어진 여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따뜻한 말투와 다정한 몸짓, 그리고 부드러운 접근은 스완이 처음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지 않았더라고 스완의 마음을 돌리는 데 일단 긍정적인 작용을 했을 것이다. 스완의 변화는 곧 그의 행동의 변형 안에서 보여진다. 스완은 혼자서 있을 때도, 그 자신도 모르게 그녀와의 만남을 추억하며 웃음 짓게 되고 결국에는 그녀를 떠올리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즉 이제부터 스완은 상상력의 ‘결정 작용’을 통한 자신만의 환상 속에서 그녀라는 또 다른 세계에 접근하게 된다.

2장에서는 이처럼 남자의 사랑이 빠지기 시작하는 과정을 ‘결정 작용’의 개념을 이용해서 남자의 꿈 속 공간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여자에 대해 상념에 빠지는 장면과 꿈속에서의 장면 상황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욕망이 발현되고 사랑의 거짓말이 생겨나면서 현실에서 남자가 여자를 다시 만나면서 벌어지는 욕망으로 인한 갈등상황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7) 권오석 역자에 따르면 “스탕달은 연애론에서 사랑에 대해 혼동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열적인 사랑(l'amour-passion), 취미적인 사랑(l'amour-goût), 육체적인 사랑(l'amour-physique), 허영적인 사랑(l'amour-vanité)로 구분한 바 있다. 또한 스탕달의 결정 작용은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사랑하는 상대방의 새로운 미점을 발견하는 정신의 활동이며 이 현상은 우리에게 쾌락을 맛보라고 명령하고 뇌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자연의 본성이자 사랑하는 상대의 미점과 함께 쾌락도 증대된다는 의식, 또한 그녀는 자기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언급한다.” Stendhal. (1990). 「연애론」, 홍신 문화사, pp. 10-14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장에서는 무대의 공간을 남자의 꿈 속 공간이라 설정으로 하고 남자가 꿈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장면 움직임을 먼저 진행하였다. 1장에서 여자 무용수가 무대 하수 Upstage쪽으로 퇴장을 한 후 남자 무용수가 상수 Upstage쪽으로 걸어와 바닥에 떨어지는 <그림 4-9>의 모습을 통해서 남자의 꿈 속 공간이 시작됨을 알리고 바닥에 몸을 구르거나 앉아서 잠시 생각에 잠기면서 여자를 잡고자 팔을 뻗는 모습의 동작으로 여자에 대한 관심의 깊이가 더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림 4-9> 꿈속의 사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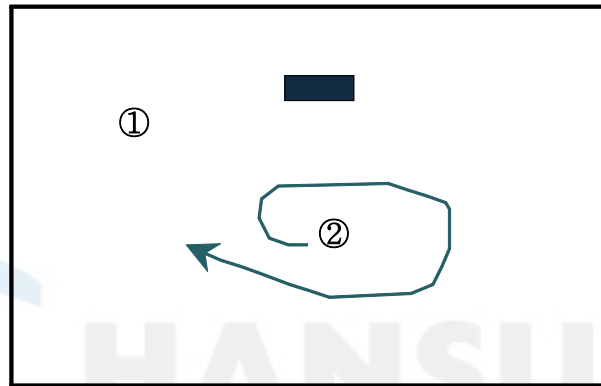


<그림 4-10> 꿈속의 사랑(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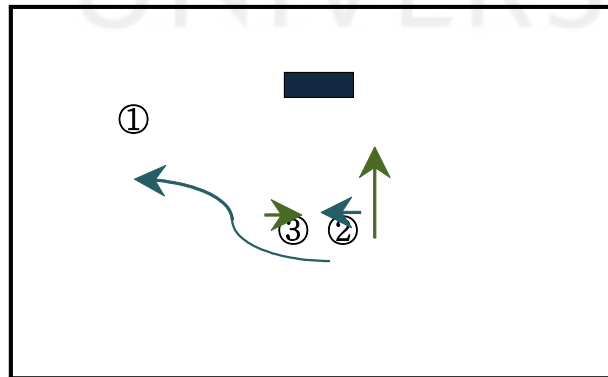
<그림 4-11> 꿈속의 사랑(3)

<그림 4-10>처럼 여자 무용수가 나와서 남자의 꿈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남자 무용수에게 팔을 뻗거나 다리를 늘이는 동작을 통해서 호감을 보이는 장면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림 4-11>에서 관찰자 무용수가 등장하면서 여자 무용수와 마주보고 와인 코르크를 쥐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호감에서 욕망으로 사랑이 변화되는 시점을 알리는 장면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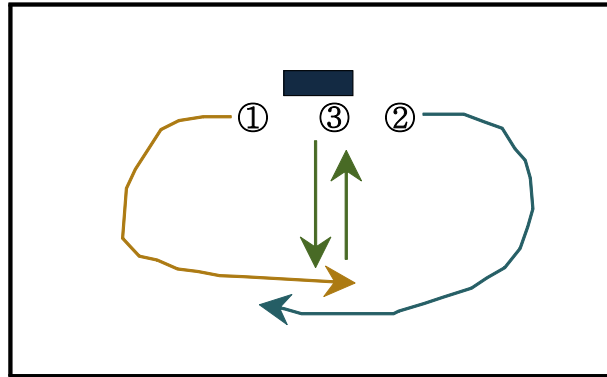
Audience

<그림 4-12> 2장 플로우 패턴(1)



Audience

<그림 4-13> 2장 플로우 패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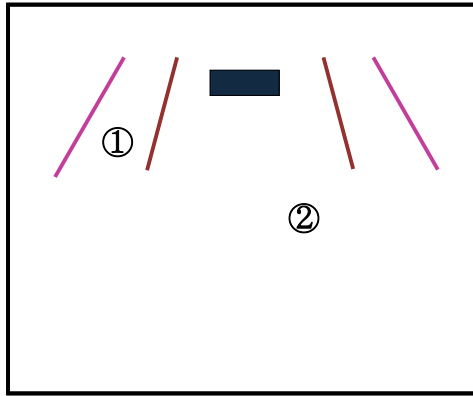
Audience

<그림 4-14> 2장 플로우 패턴(3)

4.2.3 무대장치 및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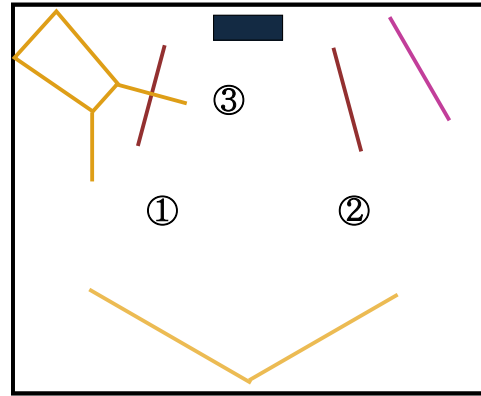
꿈속이라는 공간의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조명의 컬러를 이용해서 현실의 공간과 이질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후광(Back light)에서 비추는 조명을 사용하여 그림자를 앞쪽으로 드리우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몽환적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였고 붉은색과 보라색의 조명을 같이 사용하여 공간의 전체적인 느낌을 가라앉히고 깊이를 더하고자 하였다.

남자 무용수가 현실에서 여자 무용수를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 전화되는 조명은 상측광(High side light) 조명을 이용해서 공간의 깊이 있는 느낌은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좀 더 인식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그렇게 되면 빛의 방향적인 특징에 의해서 무용수의 그림자가 더 길게 드리우게 되고 두 남녀 무용수가 교차하면서 무대 위를 걷고 있을 때 그림자가 겹치는 느낌이 흡사 어둠 속에서 서로를 욕망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를 조명의 색깔과 방향성으로 연출하였다.



Audience

<그림 4-15> 2장 조명의 형태(1)



Audience

<그림 4-16> 2장 조명의 형태(2)

4.2.4 음악

조명과 어울리는 공간감을 청각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음악의 전체적인 분위기고 차분하게 조성하였다. 전자 피아노의 소리로 재즈풍의 선율을 연상케 하는 멜로디로 몽환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나타내고자 하였고 현실공간으로 전화되면서 남녀 무용수가 만나는 장면에서는 시계 소리를 넣어서 시간의 흐름을 인지시키려고 하였다. 두 무용수가 와인잔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은 무음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 와인잔을 부딪치는 소리로 인해서 다음 장면에 대한 시작 신호를 주고자 하였다.

4.3 3장: 욕망의 발현

4.3.1 내용 및 안무의도

사랑에 빠져들면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없어지고 타인을 향한 여행을 떠나게 되며 그 상대가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을 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대상이 만든 여정을 타게 되는 것이다.⁸⁾ 흡사 사랑은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다. 단지 나의 존재만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도 긍정하는 것이다. 사랑은 “네가 무한히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만일 나의 존재에 비중을 더 둔다면 그것은 사랑일 수 없다. 오히려 너의 존재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이 사랑이다.⁹⁾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스완은 전적으로 자신의 존재보다 오데뜨의 편에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데뜨에게 집착하고 동시에 의심을 가지면서도 그녀가 계속해서 자신 옆에 있어주길 바라기에 그녀를 머리하지 않는다. 반면 오데뜨는 항상 자신의 관점에서 스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에게 마음의 상처를 생기게 하고 그를 무시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처음 스완에게 다정히 다가갔던 오데뜨를 찾아볼 수 없다.

3장에서는 관계의 익숙함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살짝은 떨어진 상태에서 여전히 서로의 다른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를 표현하는 장면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사랑의 탐색 과정에서 호감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욕망으로 발현되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두 무용수의 무게를 이용한 밀고 당기고 들고 매달리는 움직임으로 관계가 점점 역동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8) Ortega y Gasset, José. (2008). 「사랑에 관한 연구」(*Estudios sobre el amor*), 전기순 역, 풀빛, p. 13.

9) 서배식. (2001). 「사랑철학」, 형설출판사, pp. 234-235

4.3.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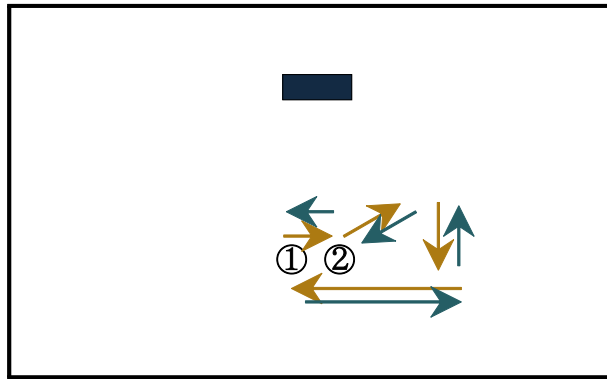


<그림 4-17> 욕망의 발현(1)

남녀의 가까워진 모습을 물리적인 공간감을 줄이고 남녀의 접촉을 통한 움직임으로 표현하려고 하였다. <그림 4-17>처럼 여자의 눈을 가리거나 <그림 4-18>처럼 서로 가까이 바라보면서 서로를 더 가까이 붙어 있게 하려고 무게를 이용해 밀치거나 당기거나 하는 움직임으로 서로의 몸이 부딪치거나 잡혔을 때의 느낌이 가볍지 않게 구성하여 소유에 대한 욕심과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과정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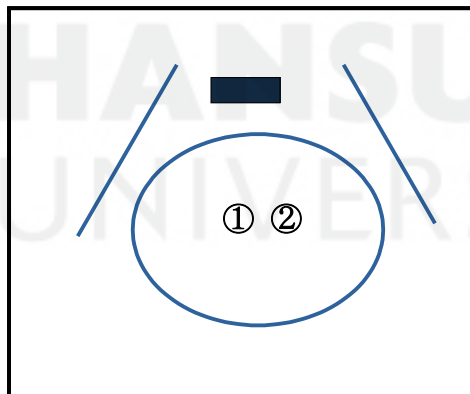
<그림 4-18> 욕망의 발현(2)



Audience

<그림 4-19> 3장 플로우 패턴(1)

4.3.3 무대장치 및 조명



Audience

<그림 4-20> 3장 조명의 형태(1)

3장에서는 두 무용수의 사랑의 관계가 변화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전 장면에서 보였던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조명의 색깔도 붉은색과 대비되는 파란색 조명으로 전환하면서 공간의 느낌을 적막하면서도 차갑게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무용수의 움직임이 조금 날카롭고 매섭게 몰아치는 것 같은 느낌을 드러내기 위해서 후광(Back light)과 전광(Front light)을 이용하여 공간 전체를 비추어 사용하였다.

4.3.4 음악

3장에서 프랑스 시인인 샤를 보들레르의 ‘적수(L’Ennemi)’라는 시를 읊은 사운드를 사용하였다. 시의 내용은 보들레르 시인의 자전적인 내용으로 써져 있는데 자기 작품에 대해서 만족 못하는 고통이 삶을 먹어치우는 시간과 같다는 내용이다. 시 문체의 느낌은 울부짖듯이 내지르는 듯한 어조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시의 내용과 시의 운율을 참고로 해서 본 연구자는 남녀 무용수의 움직임에서 편한 관계가 아닌 조금 더 치열하고 고통으로 발전이 되는 단계로 가는 역동적인 움직임의 범위를 확장하고 욕구에 사로잡혀 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4.4 4장: 사랑은 전부에 대한 욕구이다.

4.4.1 내용 및 안무의도

사랑의 이론가인 프루스트는 사랑을 “그 사람을 소유하려는 고통스럽고 미친 욕망”(Le besoin insensé et douloureux de le posséder)이라고 정의한다. 그것은 부족함, 욕구불만, 소유권의 상실, 빼앗김의 개념과 관계된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전부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도 스완은 환상에 갇혀 오데뜨를 바라보았고 언제나 그 상상 속의 오데뜨는 의혹과 의심을 품게 만드는 여인이었다. 하지만 스완이 오데뜨의 집에서 느낀 것은 결국 현실의 세계의 오데뜨 그 자체였다. 그 속에서 스완은 희미하게 오데뜨와 결혼하는 꿈을 키우지만 이미 부부생활의 안정이 그의 고통의 불안을 안심시키는 행위이자 동시에 그의 사랑이 끝나게 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것은 곧 결혼과 같은 평안한 의식은 오히려 사랑의 행위에 있어서 바람직한 행위가 아닐 수 있다. 불같은 열정은 부부가 아니 사랑의 고통을 통해서 혹시나 달아날지도 모르는 존재를 보는 불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¹¹⁾

위의 문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번 장에서는 고통스럽고 미친 욕망이 어떤 모습인지 드러내고자 하였다. 사랑이 점점 아름답고 낭만적인 방향으로 발전이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사랑하면서 불안한 감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있다는 상상을 해 보았다. 본 연구자의 텍스트 본문에서도 사랑은 고통을 통해서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보인다고 하는 만큼 프루스트의 점

10) 김희영. (2003). 「프루스트 사랑의 담론」, 외국 문학연구 제 13호, p. 77

11) 불안의 개념을 명확히 밝힌 키에르 케고어는 무(無)에서부터 불안을 자아낸다고 언급한다. 정신이 꿈을 꾸고 자기의 존재성을 앞으로 투영한다면 이 현실성은 무다. 따라서 불안이란 꿈을 꾸고 있는 정신의 규칙이고, 또 그런 것이니 만큼 심리학에 포함된다고 본다. 깨어있을 때, 나에게 스스로인 것과 나한테 타자인 것 사이의 구별은 확실히 설정되지만, 잠을 자고 있을 때는 그 구분이 멈춰지고,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그 구분은 애매하게 암시되는 무가 된다. 따라서 그 정신이 그 가능성을 잡으려고 하면 그것은 없어져 버리고 그것은 겨우 불안을 생기게 할 수 있을 따름인 무에 지나지 않다. 그리고 이처럼 불안에 관한 여러 가지 변증법을 고찰하면 바로 변증법적인 뚜렷한 양의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불안은 하나의 공감각적 반감(反感)이고 그리고 하나의 반감적인 공감이다. 이것으로부터 불안이 욕망과는 차이가 있는 심리학적 규정이라는 사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Søren Kierkegaard, Søren. (2011). 「불안의 개념」, 임춘갑 역, 치우, pp. 76-78 참조

근 방법을 따라서 두 남녀 간의 사랑의 고통이 의혹과 두려움, 근심과 불안이 일으키는 욕망의 감정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하였다.

4.4.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4장의 움직임은 3장에서부터 연결되는 움직임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 두 남녀의 듀엣 동작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자신만의 중심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동작들로 연결해서 거칠고 상대방을 잡아당기거나 세차게 밀치거나 혹은 상대방을 던져 내치는 동작들을 주로 드러냄으로써 호감 뒤에 숨겨져 있던 상대방에 대한 수많은 욕망들이 표면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림 4-21> 사랑의 욕망(1)



<그림 4-22> 사랑의 욕망(2)

<그림 4-22>에서처럼 관찰자 역할의 무용수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남녀 무용수의 욕망이 증폭이 되는 순간으로 넘어가고 무대 동선을 넓게 활용을 해서 서로 엇갈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림 4-23>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용수들의 군무를 통해서 사랑의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과정을 나타내려 하였고 <그림 4-24>에서 관찰자 무용수가 두 무용수의 꿈이자 물질화된 욕망 조각을 상징하는 코르크가 담긴 와인잔을 들고 두 남녀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사랑하는 과정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닌 서로의 완전한 소유를 원하는 과정으로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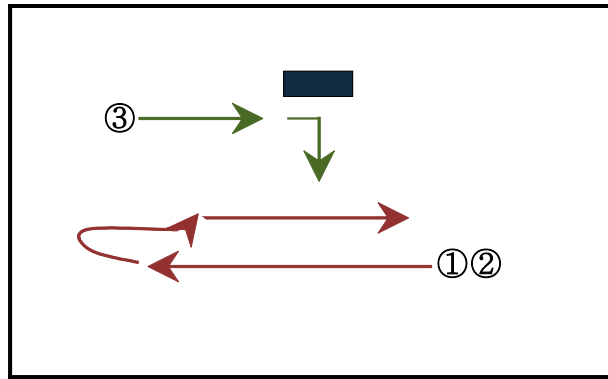
이 이루어져 왔기에 두 남녀 무용수에 의해서 관찰자 무용수가 들고 있던 와인잔에서 와인 코르크가 바닥으로 쏟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서로의 꿈과 물질화된 욕망이 흩어져 사라지는 단계로 연결되는 장면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림 4-23> 사랑의 욕망(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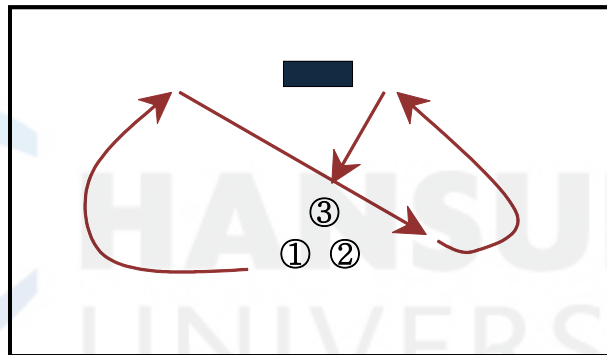


<그림 4-24> 사랑의 욕망(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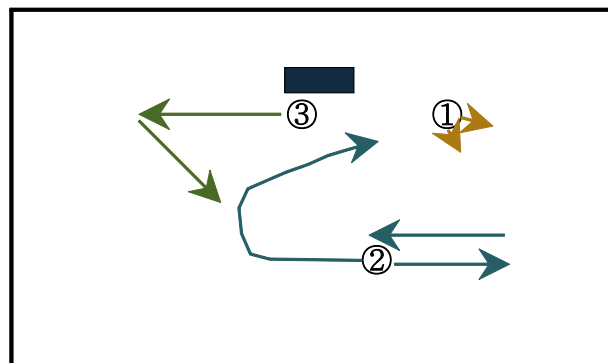
Audience

<그림 4-25> 4장 플로우 패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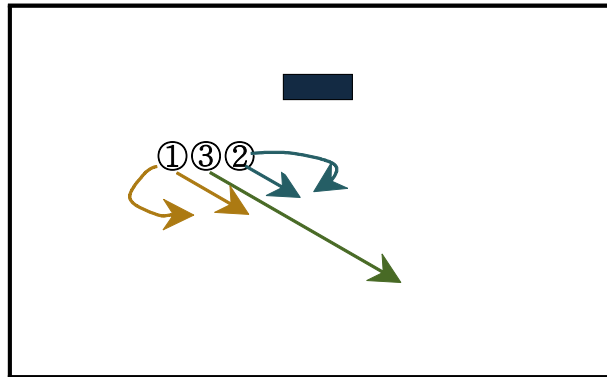
Audience

<그림 4-26> 4장 플로우 패턴(2)



Audience

<그림 4-27> 4장 플로우 패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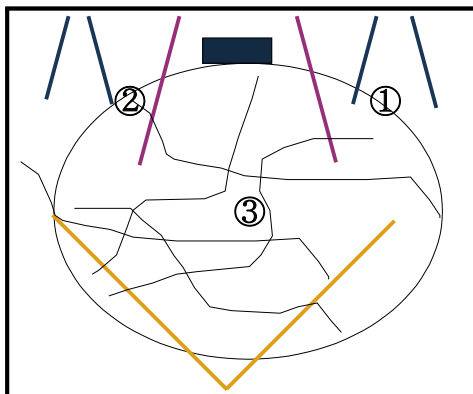


Aud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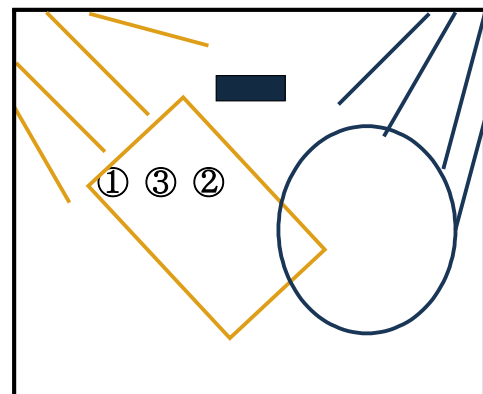
<그림 4-28> 4장 플로우 패턴(4)

4.4.3 무대장치 및 조명

공간 전체에 갈등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드러내고자 전광(Front light)과 후광(Back light)을 사용해서 무대 바닥에 그물 무늬 모양의 고보를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질감을 이전 장과 차이를 두고자 하였고 무겁고 차가운 공간의 느낌을 통해 장면의 심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라색과 파란색위주의 조명을 활용하였다.



Audience



Audience

<그림 4-29> 4장 조명의 형태(1) <그림 4-30> 4장 조명의 형태(2)

4.4.4 음악

공간의 느낌과 어울리는 음악을 구성하기 위해서 단조 선율의 피아노 사운드와 저음의 첼로 사운드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4장을 음악을 만들었다. 중간 중간 울리는 퍼쿠션 사운드는 갈등을 고조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멜로디의 빠르기가 일정한 빠르기를 유지하나 음악을 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통 빠르기 이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박자를 설정하였다. 음악에서 느껴지는 심상은 달리는 듯하고 급하게 무언가를 찾거나 잡으로 가는 심상이 느껴지게끔 구성해서 공간과 장면의 느낌을 일치시키고자 하였다.



4.5 5장 : 사랑의 실체

4.5.1 내용 및 안무의도

「잃어버린 사랑의 찾아서」에서 스완이 가지고 있던 오테뜨에 대한 환상은 이미 실패를 예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환상은 환상이므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지니며 환상을 인지하는 순간 역시 환상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가장 심한 사랑은 잃어버림 안에서 천천히 없어지고 우리가 사랑했었던 이 대상들은 우리의 무관심으로 없어지며 고통은 우리를 망각에서 눈을 뜨게 하듯이 스완의 사랑은 고통의 과정으로 실패가 예정된 결국은 이를 수 없는 탐구 과정에 불과하다.

이 작품의 마지막 장으로서 결국 환상에서부터 만들어낸 욕망이 서로의 사랑을 탐욕과 허상으로 만들어진 내면을 바라보게 하며 내 뜻대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은 환상과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고 그것들을 현실속에서 발견하려는 노력은 어김없이 좌절이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4.5.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5장 첫 장면에서 두 남녀 무용수는 와인 코르크가 쏟아져 버린 빈 잔을 들고 와인잔을 입에 대고 마시는 동작을 한다. 이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은 남아 있지만 그것은 서로의 대상에 대한 마음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만 남아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후 두 남녀 무용수는 <그림 4-31>과 <그림 4-32>에서처럼 취한 듯이 무대를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사방으로 움직이는데 이 동작은 2장에서 와인잔에 코르크를 가득 채운채로 휘청거리는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의도로 동작을 구성하였다.

결국 남자는 꿈에서의 연상 작용으로 인해서 여자에 대한 상상과 환상 속에 갇혀 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지치고 한 사람은 다른 욕망을 갈구하는 모습을 <그림 4-33>과 <그림 4-34>와 같이 바닥에 누워지는 동작과 길을 넓은 보폭으로 상체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나가는 동작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4-31> 사랑의 실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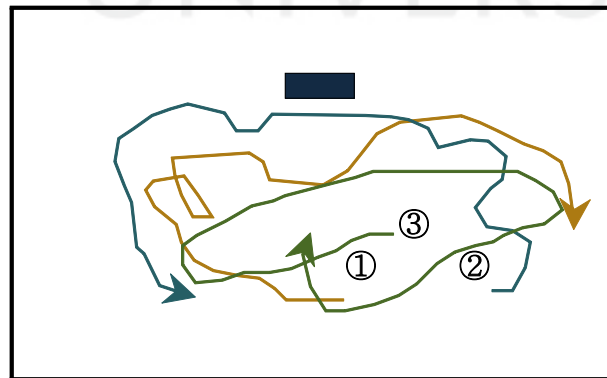
<그림 4-32> 사랑의 실체(2)



<그림 4-33> 사랑의 실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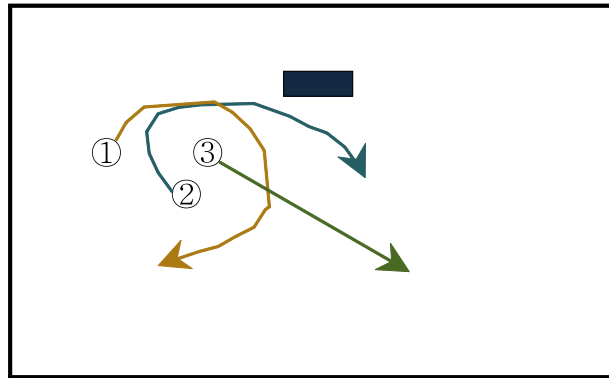


<그림 4-34> 사랑의 실체(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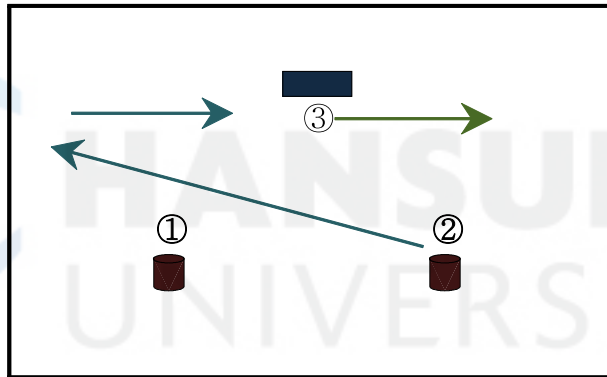
Audience

<그림 4-35> 5장 플로우 패턴(1)



Audience

<그림 4-36> 5장 플로우 패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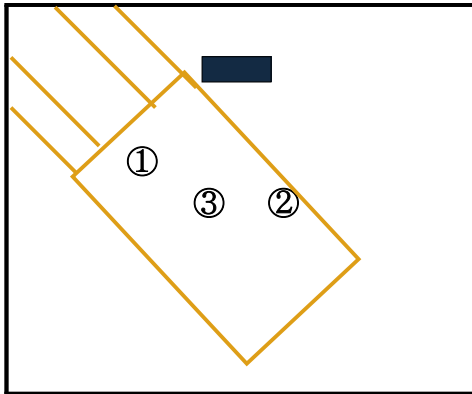
Audience

<그림 4-37> 5장 플로우 패턴(3)

4.5.3 무대장치 및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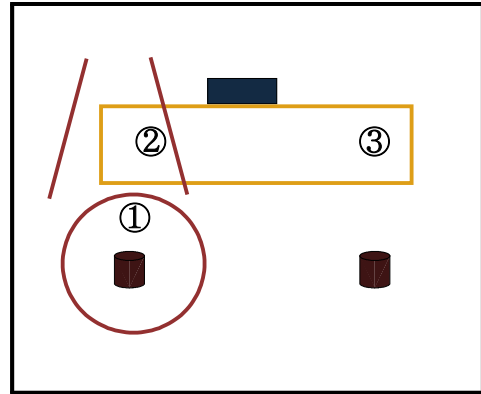
5장은 상측광(High side light) 조명을 사용하여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서로의 모습을 자각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였고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망도 줄어들면서 드러나는 두 남녀 무용수의 모습을 각각 붉은 조명과 길 모양의 조명을 사용하였다. 두 무용수의 느낌이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지도록 빛의 질감과 형태와 방향성을 사용해서 보는 이로 하여

금 환상으로부터 이루어진 신기루 같은 느낌의 공간감을 의도하고자 하였다.



Audience

<그림 4-38> 5장 조명의 형태(1)



Audience

<그림 4-39> 5장 조명의 형태(2)

4.5.4 음악

5장 첫 음악은 1장에서 나왔던 심전도 소리가 반복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이것은 사랑의 욕망이 무너지면서 환상에서 현실로 깨어나오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심전도 소리를 다시 사용하였다. 이어서 나오는 음악은 조명에서 연출되는 공간의 느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환상으로부터 나오는 신기루 같은 모습의 아련하고 모든 감정들이 정리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전자 신디사이저의 차분한 멜로디로 구성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자는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내용 중에서 스완과 오데뜨의 사랑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사랑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욕망이 사랑의 고통과 불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사랑의 실재를 깨닫는다는 것을 작품의 분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였다.

프루스트의 작품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이며 그리고 보통의 사랑을 넘어서 사랑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프루스트의 자세는 비관적이기 보다는 마치 사랑의 고통을 그려내는 철학자와도 같았다.

작품의 기본이 되는 프루스트의 소설을 살펴보면 그가 사랑이야기를 통해서 밝히고자 했던 목적은 사랑의 고통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실세계에 대한 성찰이었던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작품을 위해서 프루스트식 사랑을 탐구하였다.

프루스트식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사랑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따라오는 감정이 불안이었다. 불안이란 본질적으로, 욕망하는 사람과 욕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각각 다른 장소에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곳에 혼자 있는데 상대방은 다른 장소에서 즐기고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의 거리감을 갑자기 느끼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¹²⁾

스완과 오데뜨의 사랑을 보면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일반적인 사랑의 전개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반대로 고통과 불안, 의심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없어짐에 따른 가장 불행한 사랑과 마주한다. 이것은 스완의 사랑이 실패하면서 동시에 환상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은 스완의 사랑이 실패가 준비된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다.

프루스트에 있어서 깊숙한 현실은 항상 ‘내면적’이며, 처음부터 인식 주체에 관련되지 않은 사실적인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우리가 꿈에서 벗어나 꿈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의 본질은 이미 욕망과 상

12) Poulet, George. (1963). L'espace proustien, Paris Gallimard, p. 62

상력에 오염되어 있으며, 깨달음의 상대 또한 주체의 욕망과 상상력의 오염에서 멀리 있지 않기 때문이다. 13)

위와 같이 프루스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방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작품을 통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알려주는 사랑의 체험은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그 자신의 심오한 부분을 드러내 준다는 점을 결론으로 무용 예술의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사랑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 장의 특징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질적인 움직임의 요소를 고민하고 움직임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동작을 연결해서 구성하였으며,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조명과 음악, 소품을 통해서 작품의 적절한 이미지와 느낌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작품을 연구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사랑이 낭만적이지 않더라도 사랑의 가치는 그 자체로도 소중한 것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결과가 얻어지던 간에 사랑의 본질은 그 주체의 중심에 있고, 주체가 존재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랑의 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사랑의 환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신의 내면을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일 것이라는 것도 인지하게 되었고 프루스트의 작품에서 나오는 여러 예술의 기호들을 접하면서 사랑에 있어서 예술은 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프루스트의 작품을 1년 가까이 접하면서 본 연구자는 프루스트와 관련된 인문, 사회, 철학 분야의 자료를 조사해 왔고 자료를 통해서 본 연구자의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생각하는 관점이 넓어지는 변화가 생겼다. 그럼으로 인해서 창조적인 예술 활동을 위한 동기가 더 확실하게 생겼고 실천적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민과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본 작품과 논문을 통하여 앞으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예술 활동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하고 예술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바라는 바이다.

13) 이성복. (2004). 「프루스트와 지드에서의 사랑이라는 환상」, 문학과 지성사, p. 110

참 고 문 헌

- 김승철. (2006). 『프루스트와 性的 언어』, 한국 학술정보.
- 김예진. (1999).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타난 주인공 마르셀의 작가 체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영. (2003). 『프루스트 사랑의 담론』, 외국 문학연구 제 13호.
- 서배식. (2001). 『사랑 철학』, 형설출판사.
- 이성복. (2004). 『프루스트와 지드에서의 환상』, 문학과 지성사.
- 임여진(2014). “마르셀 프루스트의 『스완의 사랑』에 나타난 사랑과 질투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해림(2014).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타난 몸치장의 문학적 기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Maurois, André. (1993). 『프루스트를 찾아서』, 김창석 옮김, 정음사.
- E. Rallo Ditche, J. Fontanille, P. Lombardo. (2005). *Dictionnaire des passions littéraires*, Berlin, p.170
- Poulet, George. (1963). *L'espace proustien*, Paris Gallimard, p. 62
- L. Guichard. (1956). *Introduntion à la lecture de Proust*, Nizet, p. 101
- Marcel Proust. (2012).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김희영 옮김, 민음사.
- Grimaldi, Nicolas. (1993). *La jalousie*, Actes sub, p. 9
- Ortega y Gasset, José. (2008). 『사랑에 사랑에 관한 연구』 (*Estudios sobre el amor*), 전기순 옮김, 풀빛.
- Kierkegaard, Søren. (2011). 『불안의 개념』, 임춘갑 옮김, 치우.
- Stendhal. (1990). 『연애론』, 권오석 옮김, 홍신 문화사.

부 록

1.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 품 명	피할 수 없는 순간들
일 시	2019년 6월 19일 월요일 pm 8시
장 소	M극장
안무자	이범구
출연자	박재혁, 태정원, 이범구
음 악	김준수
의상디자인	지 선
무대감독	박철수
조명감독	김병구
영상감독	이인규



ABSTRACT

A Study on the Creative Dance Work, 「Inevitable Moments」

Lee, bum ku

Major in Dance Perform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In this study, I tried to find out the expression of "Inevitable Moments" as a theme of love and to find out how to express it. Through the characters of Swan and Odette in Marcel Proust's novel "Finding Lost Time" It is a work made with ballet to explore the reality of love with a process motif.

Marcel Proust is a twentieth century writer who constantly explores and sacrifices forgotten unconscious memories. Proust's "Finding Lost Time" is everything that comes to mind with the idea of Proust, whose fields range from philosophy, art, architecture, society, and politics. However, the most frequently presented material is love. This researcher

has been interested in the meaning of love and the love of the approach which are common in these days when he touches the novel of Proust.

Based on the way of love that appears in Proust's work, this work reveals the unbearable suffering through the work of this study, revealing the profound part of his own self to a loved one. And to try to approach them by various expressions. This work consists of 5 chapters and consists of connecting the movements in the way of expanding the range of movements considering the elements of qualitative movements that can occur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each chapter that are created in the process of love. In order to communicate effectively, I tried to express the proper image and feeling of the work through lighting, music, and props.

Through the research process, the researcher has gained the opportunity to look at the word love in a new way. Even though love is not romantic, the value of love is invaluable in itself. No matter what kind of result is obtained, It was at the center of the subject and realized that the relationship of love could change according to the way the subject existed.

Based on this, it is emphasized that the motivation for creative art activities has become clearer, and that continuous consideration and inquiry should be made on practical methods. In the future, we expect to pursue voluntary and subjective art activities and expand the awareness of art I hope.

【Key words】 Proust, love, pain, desire